

인한 시민의 권리회복이라는 직접적인 목적과 언론으로 하여금 잘못된 보도를 개선케 함으로써 대국민 공신력을 제고케하는 간접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치·운영되는 기관이란 뜻이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오랜 역사는 그러한 사실을 실증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다양한 중재과정을 통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피해를 준 언론인에게 공히 잘못된 보도가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가를 일깨워준 공헌을 남겨왔다고 평가된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는 우리 나라의 언론인들에게 오보의 심각성을 경험적으로 보여준 유일한 기관이라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본고가 오보의 심각성을 제기하게 된 문제의식이며, 언론중재위원회가 본 토론회에서 오보의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보도의 중요성과 현대사회의 변화

1) 보도의 위상과 기능

보도와 언론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보도의 위상은 바로 언론의 위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보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언론의 위상은 국가가 추구하는 국가이데올로기와 이론적 전개과정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된다. 공산주의 이념에 의하면, 언론이란 정치체계의 하위구조로서 이념적 무기와 혁명적 도구로서 규정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의하면, 언론이란 정치체계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치환경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제4부로서 규정된다.

그러나 언론의 본질에 관해서는 이념이나 이론의 차이를 초월해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언론의 본질이란 인간의 의사소통욕구(communication need)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그러니까 언론이란 인간의 의사소통욕구가 역사 속에서 영글어진 사회적 구현체라는 뜻이다.

신문, 방송, 잡지, 통신 등은 언론의 형상이고, 언론의 본질은 인간의 의사소통현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언론의 중요성을 형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인간의 의사소통현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릇 세상의 모든 질서가 그러하듯이, 형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인 데 반하여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인간의 숙명적 한계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물의 실체적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형상인 데 반하여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의 본

질이기 때문이다.

언론의 본질은 사회적 신경계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부연하면, 언론이란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각종 기관들을 수직·수평적으로 연결하는 신경줄이란 뜻이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각종 기관들은 언론과 같은 사회적 신경계통에 의해서 연결될 때에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경줄 대신에 핏줄이라 해도 무방하다 하겠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각종 기관들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국민의 눈에 잘 보이는 형상들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쉽게 인정되는 데 반하여 언론과 같은 신경계통은 국민의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언론의 본질은 민주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민주주의(民主主義)란 국민(民)이 나라의 주인(主)이 되는 정치이념을 의미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책임있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라 살림에 관해서 잘 알지 않으면 안된다. 나라 살림에 관해서 국민이 잘 알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국민이 직접 찾아가서 나라 살림에 관해 알아보는 방법이고, 그 두 번째는 언론과 같은 공적 기구로 하여금 나라 살림에 관해서 상세히 보도케 함으로써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다.

현대사회와 같이 나라 살림의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는 방법은 비경제적이고 또한 비현실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서 국민은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보고 그 정보에 따라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언론에 관한 이러한 논의들은 바로 보도의 위상과 기능에 적용된다고 보겠다. 보도란 과연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는 보도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그리고 보도는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하는가.

보도는 인간과 사회를 위한 의사소통의 채널이며, 신경계통이며, 민주화의 길이다. 우리는 보도를 인간의 의사소통현상과 사회적 신경계통과 국가적 민주화차원으로 이해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보도를 형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본질로서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보도는 인간과 사회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확장하고 신경계통을 활성화하고 민주화를 촉진하도록 기능해야 한다. 인간과 사회는 보도를 통해서 말하고 듣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과 사회는 보도를 통해서 표현욕구와 정보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궁극적 목적은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있다. 보도의 궁극적 목적 또한 의사소통을 확장함으로써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사회의 건강과 안정은 인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경계통이나 혈관조직의 건강상태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니까 사회의 신경계통이나 혈관조직이 건강해야 사회

가 건강하게 된다는 뜻이다. 보도는 사회의 신경계통을 활성화 함으로써 사회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

국민은 보도를 통하지 않고는 나라살림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알기 어렵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은 보도를 통해서만 나라살림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논리를 확장하면, 국민은 보도를 통해서만 주권행사와 같은 나라의 주인노릇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도를 민주화의 지름길이라 규정하는 것이다.

바른 보도라야 바른 국민을 만들고, 바른 국민이라야 바른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바르지 못한 보도는 바르지 못한 국민을 만들고, 바르지 못한 국민은 바르지 못한 민주주의를 만들게 된다는 뜻이다.

보도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만큼 중요한 요소가 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보도의 위상과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오보는 바르지 못한 보도의 대표적 유형에 해당된다. 오보는 의사소통채널을 붕괴시키고, 사회적 혈관계통을 병들게 하고, 민주화를 멎들게 하는 암적 존재가 된다.

2) 현대사회의 변화

보도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혁명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바른 보도는 현대사회의 대두와 더불어 생산적 정기능을 극대화하게 되고, 바르지 못한 보도는 파괴적 역기능을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

보도의 중요성을 제고한 첫 번째 현대사회의 변화는 정보화라고 말할 수 있다. 정보사회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보가 사회의 중심적 가치가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권력이고 금력이며 또한 지력(知力)에 해당된다.

보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보제공에 있다. 보도는 정보의 생산자이고 유통자이며 소비자가 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민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보도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그 보도를 통해서 나라의 주인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의 추세가 된다. 정보화는 국제화를 야기하고, 국제화의 최종 연장선상에 세계화가 존재한다. 개방화는 국제화의 필연적인 산물로 나타나게 된다.

교통의 발달은 국가와 국가간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키는 데 기여했고, 통신의 발달은 국가와 국가간의 정신적 거리를 단축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세계는 하나의 작은 지구촌으로 축소되고 말았다. 거리의 단축은 시간의 단축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화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거리와 시간의 응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제화는 세계화로 확대되고, 이러한 경향의 필연적 산물로서 개방화가 대두되는 것이다.

보도는 통신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보도는 국가와 국가간의 공간과 시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한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도는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를 자극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보도에 의해서 야기된 국제화는 다시 보도에 엄청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바른 보도는 바른 국제화에 기여하게 되고 바른 국제화는 바른 세계화와 개방화에 기여하게 된다. 그 반대로 바르지 못한 보도는 바르지 못한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화의 대두와 더불어 마치 개인이 사회 속에서 홀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국가 역시 국제사회 속에서 고립해서 존립하고 발전하기 어렵게 된다. 한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의 문제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곧 이웃나라의 문제,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문제로 비화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보도는 국제화를 야기하는데 기여했고, 국제화는 다시 보도의 중요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그러니까 전술한 바와 같이, 바른 보도는 바른 국제화에 기여하게 되고, 그 반대로 바르지 못한 보도는 바르지 못한 국제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보도의 중요성을 제고한 현대사회의 세 번째 변화는 첨단과학기술시대의 도래가 된다. 첨단과학기술에 의존하는 사회는 그 특성상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고 있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기회는 얼마든지 수용될 수 있지만 위기는 첨단과학기술사회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보도의 중요성 문제가 제기된다. 바른 보도는 첨단과학기술사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대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가 하면 반대로 바르지 못한 보도는 그 사회의 특성상 그 사회를 신속하고 엄청나게 파멸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생명과학, 우주과학, 에너지기술, 그리고 첨단통신기술 등이 그러한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 분야들이라 판단된다.

매스컴환경의 대두는 보도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마지막 사회변화가 된다. 매스컴환경은 매스미디어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에 힘입어 현대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환경이 된 지 오래이다. 현대사회를 사는 현대인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스컴환경으로부터 해방되어 살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서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가히 혁명적이라 말해도 무방하다 하겠다.

매스미디어의 영향력 증대는 자연스럽게 보도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게 된다. 바른 보도는 바른 매스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되고, 반대로 바르지 못한 보도는 바르지 못한 매스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3. 오보발생의 배경

1) 오보의 개념과 오보사례

보도에는 바른 보도와 바르지 못한 보도가 존재한다. 바른 보도를 정보(正報)라 한다면 바르지 못한 보도는 오보(誤報)가 된다. 오보를 그릇된 보도(incorrect report)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오보는 다시 부정확한 보도, 불공정한 보도, 그리고 주관적 보도로 유형화될 수